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2133-3670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정충구	2133-3680
담 당 자	김경진	2133-368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 주민대표 전문가·시의원 등 총 10명 위원 구성,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본격 추진
- '21년 서울전역 대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후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 최종 입지 선정
-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속적 증가 추세.. '26년 가연성폐기물 수도권 매립 금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시급
- 서울시 “주민 수용성 높일 수 있는 방안 함께 마련하겠다”

☐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5일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 위원회는 오는 2021년 2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시민에게 열람 및 일간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단계부터 시민에게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수시로 공개하고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앞서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어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관련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은 최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증설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 이상(85.8%)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 '20.9.11~9.16일,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산업 성장으로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뉴타운 자체 소각시설만으로는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8년 일일 868톤, 2019년 일일 950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 환경부에 따르면 '20.1~8월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하였음

- 아울러, 인천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을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종량제봉투내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등의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오는 2026년에는 수도권의 가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되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끝.

붙임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현황 : 10명(위촉직 10명)

연번	성명	성별	현직	주요경력	비고
1	 김기대 (1960)	남	서울시의원	• 현)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전)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2	 송재혁 (1960)	남	서울시의원	• 현)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현)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3	 권민 (1968)	남	환경에너지기획관	• 전)녹색에너지과장, 대기정책과장	
4	 김미화 (1960)	여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현)서울시지속발전위원회 위원 • 현)환경부자체평가 위원	
5	 신우용 (1974)	남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현)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 현)서울시청계천시민위원회위원	
6	 이정수 (1963)	여	녹색미래 공동대표	• 현)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 전)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7	 배재근 (1959)	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현)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특임이사 • 전)한국폐기물학회 학술위원장 • 전)국무조정실 부처평가위원	
8	 오길종 (1962)	남	한국폐기물협회장	• 전)녹색순환연구소 소장 • 전)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9	 서용철 (1955)	남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 전)'WTERT(국제 폐자원에너지화 연구 및 기술위원회)-ASIA 부회장 • 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10	 이남훈 (1961)	남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현)안양대학교 스마트창의융합대학장 • 전)유기성자원학회 부회장	